

본문:창22:1-14

제목:여호와 이레에 이르는 순종

- 1: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 2: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 3: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 4: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 5:이에 아브라함이 중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 6: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 7: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का
- 8: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 9: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 10: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 11: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 12: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 13: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 14: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사녀는 부모에게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는 속담처럼
사녀가 아무리 많아도, 그 모두가 소중한입니다.

그런데 외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쳐야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보다 더 한 아픔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황금 같은 아들 “이삭” 을**
하나님께서 어느날, 번제로 드리라는 정천벽력 같은, 명령이 일방적으로
떨어졌습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여호와, “이레” 라는
놀라운 인정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 처럼
여호와 “이레에” 이르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 잘 경청해야 합니다.

창22:1-2

1: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악으로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시며**
다만 보다 높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 연단하십니다.

약1:13

13: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
시느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아브라함의 신앙, 근본자세가 보입니다.
목적격이, 3번 나타나 이 명령의 중요성과, 순종하기 어려운 점을 표시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고

후일에 후처 “그두라의” 소생이, 6명이나 되었습니다

창25:1-2

1: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2:그가 시므란과 옥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러나 이스마엘이 떠난 이 때, “이삭만이” 남았고

사라에게는, 독자였으나

이삭은 여러 아들 중에서, 언약으로 주신 아들로써 독자였습니다.

☺ 이삭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요3:16

16: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제물 전체를, 불태우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가장 어려운 “최고의” 제사였습니다.

기적의, 아들이며 아버지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모순점이

순종의, 장애였으나 아브라함은, 조용히 순종함으로

시험을, 통과하였고 승리하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줄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히11:19

19: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 옛날 한나절에 2백리를 가는 켄겔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렇게 빨리 걸을 수 있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가 답하기를 나의 아버지가 가르쳐 준 2가지를 충실히 지키고 있을 뿐 이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물웅덩이를, 뛰어넘지 말라.

둘째는 자갈을, 밟지 말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잔걸음** 걷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누구든 아침나절엔, 원기가 넘치기에 물웅덩이를, 뛰어넘으며
언덕길도, 수월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리가, 나중엔 달이 나서 결국은, 지치게 됩니다.
물웅덩이를, 뛰어넘지 말라는 말은, 결코 무리하여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갈을 밟지 말라**” 는 말은
한 눈 팔지 말고 발밑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남긴, 쉬운 말들 속에 큰 가르침이, 깃들어 있습니다.
천 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도 있듯이
큰 성공일수록, 작은 하나하나와 하루하루를, 무리함이 없이 조심하며
지날 때에, 거두어 집니다.

무리하게, 힘만 믿고 나가다가는 실패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시금 말하거니와, 무리하지 말고 발밑의 작은 일 하나하나에
조심해야 합니다.

☺☺ 모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경험과, 고집과,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전적으로, 경청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경청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려 여호와 이레에, 이르는
순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즉시 “**해야**” 합니다

창22:3-4

3: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또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즉각,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즉각 준비를 갖추어 나갑니다.
결은, 고요하나 속에는, 폭풍우가 터졌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출발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과, 갈 길이, 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75Km의 거리임으로
아브라함의 여행은, 계 3일만에 도달되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아들을, 바질 “모리아 산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각오는, 되어 있었으나 이 산이 보일 때까지, 접근해야 합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이 “불순종” 입니다.

사탄은, 순종하되 지금이 아닌, 다음에 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순종을 다음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조금도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을, 없애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연기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여, 여호와 이레에 이르는 순종의 성도와 가정과 인생이 되시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말씀 “그대로” 해야 합니다

창22:9-10

9: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
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삭의 동작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이 만나 완전한, 순종의 여호와 “이레” 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나이는 “17세로” 추측됩니다.

젊은 이삭이 생명의 위기에서, 거역한다면
번제는커녕, 살인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삭의 특징은, 말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준비하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을, 잡으려
고 하였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완전 단념은, 완전한 “순종을” 뜻합니다.

완전 순종의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 주심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한 숫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영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귀와 귀신은 우리를 치러 올라옵니다.

신28:7

7: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
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
하리라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피하거나 대제할 수, 없기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3일 동안 모리아 산을 향하여, 행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여호와 이레에 이르는, 순종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